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 (223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7)

오름왕국 속에 우뚝 솟은 형제오름

입력 : 2004. 12.10. 00:00:00



▲오름왕국 속에 우뚝 솟은 바리메오름. /사진=김명선기자mskim@hallailbo.co.kr

바리메·아끈바리메오름

오름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나 애월읍 지역의 오름탐사가 이어지고 있다. 바리메와 아끈바리메에 오르니 온통 오름들로 포위돼 마치 오름왕국 한복판에 와 있는 듯 하다.

애월읍 지역에서 볼 때 큰노꼬메오름 서편에 우람한 자태로 우뚝 버티고 있는 오름이 바리메오름이다. 바리메오름은 어음리 산1번지 지경이고, 아끈바리메는 상가리 산124번지 지경이다. 서부관광도로~어리목 산록도로에서 웅진리조트 맞은편 공동목장 진입로를 따라 1.9km가량 올라가면 바리메와 아끈바리메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

동쪽에 위치한 아끈바리메를 먼저 탐사했다. 바리메는 비고가 213m로 우뚝 솟아 있는 반면 아끈바리메는 126m로 낮아 아우격이지만 능선을 한 바퀴 돌아보니 원형분화구인 바리메와는 확연히 다른 산세를 갖추고 있었다.

동서로 가로누워 크고 작은 서너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등성이가 사방으로 갈라져 내리며 우묵한 서사면과 북사면에 깊숙한 골이 패어 있다. 세 개의 작은 봉우리가 가운데 주봉을 웅립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바리메에서 내려다 보면 아끈바리메의 산세가 울퉁불퉁한 게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서북쪽으로 터진 방향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썼던 옛 무덤 2기를 분화구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아끈바리메에도 일본군 교통호와 진지동굴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규모와 구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화기진지용 참호가 여러 군데 구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바리메(鉢山)를 올랐다. 스님들이 밥그릇을 얹어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이름지어진 오름이다.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오르니 발아래 펼쳐진 납읍리 공동목장을 비롯하여 애월읍, 한림읍, 그리고 한경면 일대까지 한 눈에 조망된다.

일제강점기 때 관동군 121사단 본부가 주둔했던 오름이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 기록들을 보면 사단 본부와 제주 북군지역의 군수 보급창이 있었다. 이 오름에는 3~5개의 대형 진지동굴이 있었고, 일본군이 철수할 때 진지동굴에 저장했던 탄약과 군복 등 군수물자들을 그대로 두고 입구를 폭파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 금괴와 무기가 남아 있다는 소문으로 진지동굴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오름 동사면 하단에 대해 발굴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리 모양의 원형 분화구 등성마루를 따라 한바퀴 빙 돌면서 동쪽의 큰노꼬메, 그 너머 한라산과 제주 서부 일대를 조망하는 것이 이 오름의 멋이다.

탐사당일, 날씨가 흐려 시원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온통 오름들로 가득했다. 남쪽으로는 삼형제오름과 노루오름이 긴 산맥처럼 구비쳐 있고, 그 아래에 돌오름이 앉아 있다. 서쪽에는 오름들이 층층이 겹쳐 있는데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왕이메, 다래오름, 폭낭오름, 영아리오름 등이고, 서북쪽으로는 새별오름, 이달오름이 다소 멀리 내려다 보인다. 정북쪽으로는 유수암리의 진산인 검은데기오름, 수산리의 수산오름, 고내리의 고내봉, 봉성리의 어도오름, 광지리의 과오름 등이 나즈막히 자리잡고 있다. 바리메의 정상은 남쪽 봉우리이며 봉우리를 기점으로 굽부리 바닥까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도를 이루고 있다. 주변 마을의 공동목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리메는 큰노꼬메와 함께 애월읍 지역 오름의 수장격으로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특별취재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